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4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음 12월 29일) 제17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설 대목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통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전주 시내의 한 전통시장의 어느 정육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설 명절 '코앞' 전통시장은 '침체'

설 대목 장사 안돼 '울상'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뚝' 선물가격 하향 평준화도 한몫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중장기적인 접근·정책 필요

설 대목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통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가격의 하향 평준화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박모(51)씨는 "지난해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지만 '명절 앞두고 장사가 이 만큼 안된 것도 처음인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과일 가격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손님은 부족하지만, 막상 자갑을 쉽게 열지 않는 게 요즘 전통시장의 풍경이다.

김씨는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손님이 크게 준 것 같지도 않은데,

매상이 안 오르는 것 보면 이상해요. 평소보다 시장 주변에 차도 늘었고, 물건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라고 말했다.

침체된 설 대목 소비심리의 직격탄은 계란과 닭을 파는 상인들에게 떨어졌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 탓에 상점 앞을 그냥 지나치는 손님만 있고 가격 조차도 묻지 않는다고 상인들은 한탄섞인 말을 했다.

계란 가격은 AI 사태 이전보다 거의 두배 가량 치솟았기 때문에 제수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이야기다.

설 명절 선물로 택배를 보내던 물량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전통시장 인근 택배취급소에는 각종 박스가 수십 개 쌓여 있지만, 지난해 만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택배취급소 관계자는 "택배 접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줄어서, 택배 보관 사무실이 좀 썰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의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위한 캠페인을 전개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일까지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정해 계란을 포함한 필수품의 공급을 1.4배 늘리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밖에도 명절 긴급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중은행과 함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부양과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지원책 보다는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한 요구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명절에 맞춰 여러 지원책이 쏟아지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상인들은 대형마트와의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형마트 보다 값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농축수산물

을 보유한 전통시장에 대한 방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인재용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안될 말'"

도, 정몽준 자택 앞에서 릴레이 시위 나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방침에 반발한 도민들이 현대중공업 최대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자택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25일 전북도는 "전북도민 500여명이 오후 3시부터 서울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에서 '군산조선소 폐쇄 반대 릴레이 시위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6월 가동중단 방침에 반발해온 전북도민들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관련사진 2면>

이날 출정식에는 김관영 국회의원과 문동신 군산시장, 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군산지역 도의원, 전북도민 등이 버스 11대로 이동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화정박물관 앞에서 출정식을 연 후 인근 정 전 의원 자택 앞으로 이동해 군산조선소 가동

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첫 인시위에 나서는 문 시장을 시작으로 1인 피켓시위와 플래카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과 양용호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폐쇄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이 적극 필요하다"면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어 현대중공업 대주인 정몽준씨 집 앞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위해 도와 군산시가 200억원 보조금 지원했다"면서 "특히,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진입도로 건설, 대학 선학과 신설 등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제논리만으로 군산조선소의 문을 닫으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군산조선소는 130만 톤의 도

크와 1,650톤의 폴리엣 크레인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시설로 전북 경제의 상징성과 세계적인 경쟁력 등을 감안해 정치권이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정부가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군산조선소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여러 조선소에 정부발주 물량을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 군산시, 군산시의회,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24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반대하는 전북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문동신 시장은 이날 "군산경제를 이끌고 있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협력업체 80여곳 도산과 근로자 6500여명 실직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군산=문정근 기자

남원 옷칠 제품, 일본 진출

경진원, 전북대 RIS 사업단과 수출 지원 추진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대학교 남원옷칠 RIS사업단은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인 옷칠기 상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자 일본 도쿄의 유명 갤러리인 아자부주방 갤러리와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한 수출 계약과 프로모션 및 일본 현지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경진원은 남원지역연구사업 육성사업의 해외 판촉 유도 및 전통 교차상 우수성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일본에 2만달러 가량의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부부주방 세트, 체와 녹차잔 세트 등의 식기류와 다용도 컵, 옷칠자개 목걸이 등 생활공예 제품으로 남원 관내 5개 업체 20여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수출 계약은 일본 동경에서 무역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포레스트 인더스트리를 통해 이뤄졌으며, 2008년 4월에 오픈한 현대 미술, 공예를 중심

으로 폭넓은 장르를 전시 판매하는 아자부주방 갤러리를 통해 현지에서 전시·판매가 이뤄질 예정으로 총 5,000달러가 먼저 수출된다.

일본 아자부주방 갤러리는 국내외 유명 작가에게 작품을 자유롭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해 향후 옷칠 제품의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진원은 일본에서의 전시 판매뿐만 아니라 현지 특별 판촉행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남원 옷칠제품의 인지도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신문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경진원 관계자는 "일본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남원시 및 전북대 RIS사업단과 상호 협력해 해외 판촉개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해외 바이어 발굴과 일본 판매 거점 구축, 해외 전시회 대행마케팅 등 남원 옷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TBN 전주교통방송
오늘부터 설 명절 특별방송
6일간 구간별 교통정보 제공

TBN 전주교통방송은 정부 3.0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6일 간 '설 명절 교통특별방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방송은 명절 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지역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귀성·귀경객들에게 각 구간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고속도로와 주요 섬포길에 전담 중계차를 투입하고 국도 위주로 방송통신원을 집중 배치해 실시간 정체 현황과 예상소요시간, 우회안내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주교통방송은 또 TBN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곡과 사연, 교통정보를 접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TBN네트워크 권역연결' 프로그램을 편성해 전북과 전남, 제주 등 호남 전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방송도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설 연휴 관계로 27일부터 30일까지 신문 읽니다.

설 연휴,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고향의 정, 마음의 정,
남원 농·축산물입니다.

NAMWON

SPECIALITY



순향남원
사랑의 1번지

남원시